

경영, 42개 금메달 경쟁... '3초 예술' 하이다이빙 인기 예약



6개 종목별 관전포인트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2일 개막한다. 194개국 2639명의 선수들은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수영, 수구, 하이다이빙, 오픈워터 수영 등 6개 종목, 76개 세부 경기에서 186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번 대회 6개 종목의 관전 포인트 등을 살펴본다.

‘수영의 꽃’ 경영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펼쳐진다. 경영은 자유형, 배영, 평형, 접영, 혼영, 자유형 릴레이 등 42개 세부 종목에서 누가 가장 빠른지 가리는 경기다.

한국 수영의 간판 김서영이 ‘마린보이’ 박태환과 안세현의 빈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김서영은 올해 광주와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FINA 챔피언스 경영 시리즈’ 1·2차대회 개인혼영에서 연이어 은메달을 따내면서 이번 대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전남 출신 선수로는 평영의 백수연(여·광주시체육회)과 김민섭(여수문수중 3년)이 대회를 빛낼 전망이다.

다이빙 종목은 눈 깜짝할 사이인 2초에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집중이 필요하다.

다이빙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다. 스프링보드, 플랫폼 등 13개 세부 종목이 펼쳐진다.

다이빙은 팔이 몸과 일직선을 유지한 채 머리 위로 쭉 뻗고 손은 가까이 모아야

개인혼영 김서영 금메달 기대

금 13개 다이빙 9일간 열전

아티스틱, 도약·연기로 승부

수구, 격렬한 몸싸움 매료

오픈워터 수영은 여수서 열려

한다. 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팔을 몸에 밀착시키고 팔꿈치는 굽히지 않아야 한다.

다이빙은 체조와 마찬가지로 심판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점수가 매겨진다. 도움단기, 안정성, 뛰어오르는 높이, 공간 자세, 입수자세, 각도 등 기술적인 면을 비롯해 미적 요소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채점 결과를 발표한다.

광주·전남 소속으로는 권하림(여·광주시체육회)이 출전한다.

아티스틱 수영은 수영과 무용이 어우러진 ‘수중발레’로 불린다. 아티스틱 수영은 12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서구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아티스틱 수영은 인원수에 따라 솔로와 듀엣 등 10개 종목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10개 금메달이 걸려있다.

물 속과 물 밖에서 도약과 연기가 곱게 함께 정리가 되고, 음악에 맞춰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국내선수는 총 11명이 출전한다.

‘수중 핸드볼’ 수구는 치열한 몸싸움으로 경기장을 찾은 관중을 매료 시키는 종목이다.

수구는 TV생중계가 되지 않는다. 직접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수구경기장을 찾아야 볼 수 있다.

몸싸움이 워낙 심해 수영복이 찢어지거나 벗겨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3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경기에는 선수 6명과 골키퍼 1명이 된다. 수구는 경기물이 핸드볼과 비슷해 간단하며 상대쪽에 골을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하이다이빙 종목에서 남자는 27m, 여자는 20m 높이에서 자유 낙하해 3초 이내에 선수의 발이 수면에 닿아야 하는 경기다.

짜릿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연상시키는 하이다이빙은 조선대 축구장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선수의 공중 예술연기와 함께 광주시 전경과 무등산, 조선대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영상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될 예정이다.

하이다이빙은 암벽이나 절벽에서 뛰어 내리는 절벽 다이빙에서 유래했다. 실내에서 펼쳐지는 하이다이빙은 이번 대회에서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8세 미만은 참가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된 하이다이빙은 국내선수가 없어 6개 종목 중 유일하게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

‘물속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수영은 바다에서 진행돼 파도를 이겨내고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필요로 한다.

오픈워터 수영은 오는 13일부터 19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중 6일간 여수시 덕충동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개최된다. 남녀 각각 5km, 10km, 25km 코스에 팀대항전(5km)이 추가돼 모두 7개 금메달이 걸려있다.

선수들은 기상과 파도 뿐 아니라 해양생물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다양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수영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



외국 다이빙 선수들이 10일 광주시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다이빙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 기자 choi@

“수영대회 성공 위해 북한 참가와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이용섭 시장 개막 맞아 호소문

김정은 위원장 결단 거듭 요청

이용섭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 겸 광주시장이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북측 선수단 파견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광주시민들에게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광주의 얼굴”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손님에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세계수영대회 개막 2일을 앞둔 10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요청하는 입장문과 함께 150만 광주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북한 선수단 참가 요청 입장문에서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없이 북한 참가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매우 유감”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북측이 150만 광주시

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통일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도 북측의 대회 참가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했다.

시민들에게는 주최도시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광주의 얼굴”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광주의 이미지를 위해 불법주차·음주운전·불법취객 막아” “3무(無) 광주”를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형호 기자 khh@



김은영의

‘그림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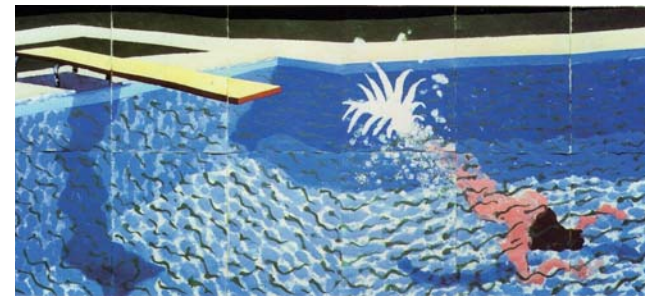
(274) 수영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광주시가 축제 분위기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를 알리기 위해 자신들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다운받은 수리달이 이모티콘을 함께 날리곤 했다. 귀여운 수리달이의 표정연기를 담은 ‘내 맘 속에 다이빙’ ‘워메!’ ‘흥미진진’ ‘최고! 최고!’ 등의 이모티콘은 인기 최고였다.

수영대회 기간에는 조선대 운동장에 조성된 경기장에서 열리는 ‘하이다이빙’ 경기를 꼭 관람하려고 한다. 무등산을 배경으로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다이빙하는 선수의 초인적인 몸짓은 상상만으로도 큰 감동을 선사할 것 같다.

‘살아있는 현대 미술의 전설’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영국 출신의 데이비드 호

꼭 보고 싶구나, 하이다이빙



데이비드 호크니 ‘다이빙하는 사람’

크니(1937~)를 유명하게 만든 그림은 로스앤젤레스의 수영장 그림들이다. 우중충한 런던의 날씨 속에서 생활하던 작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 마주하게 된 태양빛은 강렬한 그 이상의 영감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다이빙하는 사람’ (1978년작)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다이빙 선수가 연상되는 작품이다. 수영장에서 막 다이빙을 한 듯 물밀려와 파고드는 우아한 팔의 곡선과 발끝에서 일렁이는 하얀 포말이 수영장의 고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흰색과 녹색, 청색이 서로 겹치며 일으키는 부드러운 잔물결은 반짝이는 햇빛이 만들어내는 패턴일까. 수영장의 움직이는 물의 흐

름도 작가가 지각한 그대로가 아닌 추상화된 기호로 표현하고 있어 리듬감을 더해 준다.

이 작품은 호크니가 마티스의 후기 종이 오려내기 작품처럼 수영장 구성의 레이어아웃에 적합한 칼라 종이필름 프레싱 작업으로 완성한 ‘종이 수영장’ 연작 가운데 하나다. 수영장의 다이빙 모습을 재현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전반적인 수영장 분위기는 단순성과 대담함을 살려 추상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연구관·미술사박사〉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